▣ 그림 여행

유대인 신부
(The Jewish Bride c. 1666)

하르먼스 판 레인 렘브란트
(Harmensz Van Rijn Rembrandt 1606-1669)

(캔버스에 유채 155.5 cm x 121.5 cm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바로크 미술의 거장 렘브란트의 그림이다. 그림 속 커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미술사가들의 분석이 엇갈린다. 현실 속의 두 남녀가 결혼하는 장면을 그렸다는 설도 있고, 렘브란트 작품의 성향과 바로크 미술의 경향으로 보아 성경 속의 인물을 그렸다는 설도 있다. 성경의 한 장면을 그렸다면 이삭과 리브가, 혹은 야곱과 라헬의 결혼 장면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유대인 신부' 라는 제목으로 미루어 보아도 설득력이 있다.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이건 렘브란트가 결혼식 장면을 그렸다는 것은 분명하다. 동그란 얼굴의 어린 신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조바심 때문인지 수줍은 표정과 함께 막연히 불안한 빛을 보이고 있다. 신부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는 남편은 오른손을 신부의 가슴에 가만히 얹고 자상한 표정으로 신부를 내려다본다. 두 남녀를 비추는 강렬한 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캄캄한 배경을 뒤로하고 빛 속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 한몸이 되어 살아갈 맹세를 한다.

수백 년 전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일은 똑같았을 것이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 험난한 세상을 믿음과 사랑으로 헤쳐가며 살아가는 일도, 여자는 남자를 믿고 사랑하며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며 이끄는 부부의 이치도 똑같았을 것이다. 신부의 가슴에 살며시 얹은 남편의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무 걱정 말고 나를 믿으며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자고 더없이 다정하고 너그럽게 말한다. 고동치고 있는 신부의 심장은 이제 남편에게 속한다.

그러나 정작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 사랑하던 아내는 30살에 죽고, 오랜 시간 독신으로 살다가 60이 넘어 만난 어린 신부 헨드리케도 4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다. 암스테르담에 보존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집에 가 본 적이 있는데, 좁고 어두운 목조 가옥은 노쇠한 화가의 슬픔과 고독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 같았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살았던 화가가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을 그려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하다. 아니, 그가 절망에 시달리며 살았기에 이런 그림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 인간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비전을 간직했던 노화가의 위대함이 가슴에 사무치는 그림이다.

《김동백》